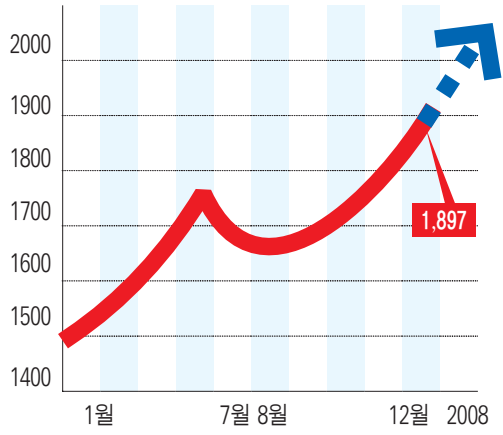


올해는 경제침체 탈출할까

일자리 늘고 내수 살아나...문제는 물가

올 국내 증시 전망



코스피 2500까지 간다

中 고성장 영향 낙관...일부선 조정 불가피

지난해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30%가량 상승, 주시형 펀드와 함께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그렇다면 올해 국내증시는 어떻게 될까. 증시 전문가들 이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만큼 급등장은 아니더라도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든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든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코스피지수 변동폭을 낙관론자들은 최대 2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비관론자들은 15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경제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높은 성장으로 연 4.8%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아 올해 2500까지 상승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증시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기업이익의 증가에 힘입어 최고 2400까지 간다"며 "주가수익률이 7%로 여전히 주식을 사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0년부터 채권·부동산·주식 등이 번갈아가면서 급등했지만 가격부담이 생겨 8년간 지속돼 온 슈퍼사이클이 끝날 것"이라며 "15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종승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는 둔화가 예상돼 상반기까지 증시가 부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중에 165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잠깐 조정이 아닌 몇달 정도 지속되는 기간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도주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외를 받았던 삼성전자 등 IT 관련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의 하나대투증권 부사장은 "하반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디스플레이·휴대전화에 이어 반도체업종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종우 교보 센터장은 "지난해 주도주인 조선·철강·건설주가 하락하는 대신 IT·자동차·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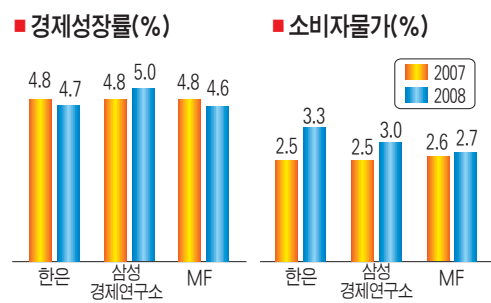
국내 경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최소 4.6%에서 최대 5.0%로 전망됐다. 그러나 물가는 크게 오르고 경상수지도 11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견이 없었다.

한국은행은 '2008년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4.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5.0%), 산업연구원(5.0%) 등 국내 국책·민간연구소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의 4.6%보다는 낙관적이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에 4.9%, 하반기에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봐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5.0%, 2007년 4.8%에 이어 2008년 4.7%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



경제성장 4.7%...고용환경 개선 경상수지 환란후 첫 적자 전환

려도 나오고 있다.

분야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고유가와 가계빚 부담이라는 악재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회복세(2007년 4.4%→4.3%)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7.6%에서 올해 6.4%로 다소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1.8%에서 올해 2.8%로 조금 나아지지만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다소 낮아지지만(11.3%→10.3%) 두자리수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물가와 경상수지.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유가상승 여파에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으로 수입이 늘고 급증하는 외국여행과 유학 등 서비스수지 악화로 인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 경제

지난해 지역경제는 제조업생산이 늘고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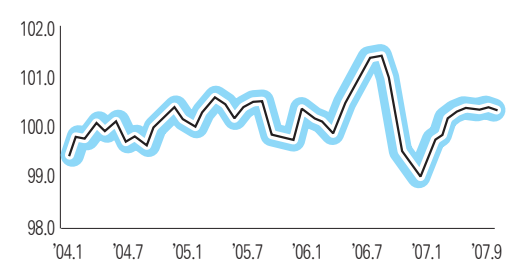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취업자수·산업생산지수·대형소매점 판매지수·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종합 분석한 '지역경기종합지수(RCI·표)'를 보면 2006년 하반기이후 급락했던 지수가 지난해 1월 98.9에서 4월 100.0, 7월 100.2, 9월 100.2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지역경제는 물가오름세 확대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져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생산은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증가세가 다소 꺾이겠지만 내수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사정은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을

■광주전남지역 경기종합지수(RIC) 추이



성장·소비 회복...경기 다소 개선 생활물가 급등 체감경기는 싸늘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가격도 혁신도시 공사가 본격화되는 나주와 엑스포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되는 여수 등 일부 개발예정지를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올해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건설부문은 혁신도시와 여수엑스포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건설부문은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가 큰 폭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분양시장 부진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돼 침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다.

'개선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광주의 쓰레기봉투값(56.5%)과 지하철 요금(11.9%)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올해도 예정돼 있는 데다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까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謹賀新年

크몽한 비록하 주신 후의에 같이 감사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평온과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동선
조일업미
한국통신주식회사
광주 전남대리점

국동비철(주)

광주광역시 유성구 오안동 270-70번지 (해남로56번지)
TEL : (062) 951-0836 FAX : (062) 951-0834

남판-크롬동-인정동
향동-전국통판-봉
AL-6061-7075
말미늘주철·향동주철